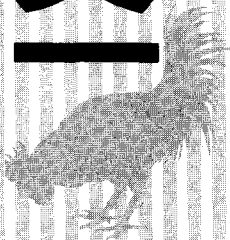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국

임신부 계란 먹으면 '2세 명석'

미국 듀크대학 의학센터의 스콧 스와츠웰더 박사팀에 의하면 임신중에 계란 노른자와 동물의 간을 많이 먹으면 우수한 두뇌를 가진 2세를 볼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두식품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영양소는 체내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세포막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연구팀은 임신 12일째부터 17일째 사이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콜린을 6일간 투여한 쪽이 낳은 새끼의 뇌가 매우 명석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쥐의 임신 12일째는 사람에게는 임신 3개월째에 해당된다.(Good day)

일본

2001년도 수입 닭고기 감소

일본의 닭고기 수입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9%가 하락한 497,633톤을 보여주었다. 특히 닭다리는 14% 줄어든 63,132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다리의 경우 미국, 브라질, 태국 순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며, 다리를 제외한 닭고기는 중국, 태국, 브라질, 미국 순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PI)

표. 일본의 닭고기 수입현황

<단위: 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닭 다리	92,444	67,284	73,916	81,599	73,174	63,132
기타부위	436,726	407,964	404,870	448,799	472,786	434,501
계	529,170	475,248	478,786	530,398	545,960	497,633

자료: 일본무역협회

태국

계란소비 캠페인으로 소비 활성화 기대

지난해 태국의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40개에 불과했으나 지

난해 말부터 실시한 계란의 우수성 홍보활동 이후 계란소비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년도의 계란 소비는 93억개로 지난해 보다 3.1%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국에서는 40년 동안 하루에 2개씩의 계란을 먹은 사람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낭설 때문에 계란소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계란은 치매를 예방하는 완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에는 1인당 소비량이 일본의 348개, 중국의 270개, 미국의 252개 보다 낮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144개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WP)

중 국

닭고기 산업과 WTO

중국의 가금육 소비 점유율을 보면 전체 육류중 1990년에는 11%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에는 거의 19%까지 상승하는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가금육 생산이 높아지는 이유는 양돈보다 수입이 좋은 것에도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9년의 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9kg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시골의 소비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골의 가금육 소비량은 2.5kg, 지방자치주의 일반 외곽 도시의 경우는 4.9kg으로 기록되어 외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수입이 10%이상 증가하면서 가정내에서

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WTO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자체판단이 나왔다. 수입산의 경우 가슴육과 통닭에 있어서 국내산 보다 가격이 비싸며, 중국 국민들이 국내산 토종 가금육에 익숙해 있고,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나 신선한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수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

러시아

빅더치만 시베리아 상륙

러시아가 독일의 빅더치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유럽지역의 공략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시베리아에 양계산업을 건설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빅더치만과 합작회사에 참여한 O사는 러시아의 서부시베리아에서 양계와 양돈의 시설을 담당하는 회사로써 러시아 양계협회는 빅더치만과의 합작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식 사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빅더치만은 이 회사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수만해도 5,300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더치만 그룹은 이로써 약 2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4년까지 우랄지역의 계란생산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빅더치만사가 현재 유럽지역에서 케이지 사육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해석하고 있다.(PI)